

‘쪼개기 송금’ 수법 성행...보이스피싱 피해 ‘경계령’

최근 4년간 광주 1,878건 발생
고액알바 미끼·수거책 광고 의심
100만원씩 나눠 입금 범죄 유형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1인당 1일 100만원’ 송금 제한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송금’ 수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목독을 벌기 위한 청년층이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각종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고액 알바’를 빙자한 수거책 모집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2022년 6월)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1,878건으로, 피해액은 465억 9,0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358건, 2020년 715건, 2021년 62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며, 올해(1~6월)의 경우 181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다.

이 기간 경찰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피의자 2,693명을 검거하고, 이중 259명을 구속했다.

보이스피싱 유형별로는 피해자들이 직접 고액의 현금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하는 대출사기형이 1,603건(85.3%)으로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했고, 이어 검찰이나 경찰 등을 사칭한 기관사칭형은 275건(14.6%)이었다.

대출사기형과 기관사칭형은 올해 각각 146건, 35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고액 알바’를 미끼로 청년층을 유인,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거책들이 수거한 현금을 총책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좌번호에 100만원씩 나눠 피해금을 보내는 일명 ‘쪼개기’ 송금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1인당 1일 100만원 송금 제한 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수법으로, 인적이 드문 365코너(무인점)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실제로 지난 11일 서구의 한 은행 무인ATM 점포에서 현금을 수차례 나눠서 입금하려던 보이스피싱 수금책이 경찰의 예리한 눈썰미에 걸려 잡혔다.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돈을 총책에게 전달하려던 A씨는 100만원씩 나눠진 피해액을 총책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좌번호에 입금했다.

그러나 당시 점포에 있던 서부경찰서 소속 B경위가 이 모습을 목격했고, 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난 27일에도 서구의 한 은행 365코너에서도 보이스피싱으로 수거한 현금을 총책에 전달하려던 수금책이 주민의 신고로 검거되기도 했다.

주민 C씨는 인근 ATM기에서 돈봉지를 들고 5만원권을 계속 입금하는 인물을 수상히 여겼고,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할 수 있게 도왔다.

이에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피해금을 빼돌리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20대와 30대 이하 청년층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수거책을 이용한 쪼개기 송금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며 “방학철을 맞이한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구직 시 비대면 면접, 현금수령 및 입금지시 등을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 광고’임을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광주·전남 코로나19 확진자 사흘째 3천명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광주·전남에 사흘 연속 3,000명대 확진자가 나왔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광주에서 1,650명, 전남에서 1,694명으로 총 3,34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8일 3,026명, 19일 3,327명에 이어 사흘째 3,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전남 사망자가 3명 늘었고 위중

증 환자도 3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성의 한 군부대에서는 지난 11일 16명이 확진된 이후 매일 환자가 발생했고 전날에도 2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군별로는 여수 290명, 순천 286명, 목포 200명, 광양 176명, 나주 126명, 무안 69명, 장성 67명, 화순 59명, 담양 58명, 영광 54명 등이다.

/임채민 기자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3,000명대를 기록한 21일 오전 광주시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편의점서 직원 살해 40대 무기징역

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 흥기로 직원을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0시 34분께 광양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 B씨(23)를 흥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환준 기자

A씨는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지인에게도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 1회의 가격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강한 힘으로 살해했다”며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환준 기자

광주 초·중·고 15곳 인조잔디 내구연한 초과

시민모임, 친환경 대책 주문

광주지역에 인조잔디가 설치된 초·중·고 절반 가량이 인조잔디 사용 가능 연한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지역 초·중·고교 28곳 중 15곳에 설치된 인조 잔디가 내구

연한(7~9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교육부가 설정한 내구연한을 절반 이상이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인조잔디 운동장이 반환경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친환경운동장 조성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인조잔디가 설치된 운동장은 유해성 검사를 매년 실시해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간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며 “그러나 내구연한을 넘긴 인조잔디에 대한 후

속 대책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교육청이 유해물질 억제에 위한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을 뿐, 학교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공색한 핑계만 대며 정작 철거하겠다는 결단은 못 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인조잔디 채설치 중단과 천연잔디, 마사토 등 친환경적 운동 조건을 마련해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전남대 교수 1인당 연구비 한 해 평균 1억5,000만원

전남대학교 교수 1인당 연구비 수주액이 한 해 평균 1억 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 교수 1,262명이 지난 2020년 수주한 연구비는 총 1,915억원(연구과제 건수 2,339건)에 달했다.

교수 1인당 평균 연구비 수주액은 1억5,000

만원(1.8건)이다.

단과대학별 연구비 수주액은 공과대학이 575억원(506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의과대학 284억원(203건), 농업생명과학대학 195억원(295건), 자연과학대학 159억원(219건), 수산해양대학 135억원(112건) 등 100억원을 넘었다. 이어 수의과대학 88억원(74건), 공학대학 68억원(89건), 인문대학 49억원(120건), 경영대학 48억원(66건), 사범대학 37억원(110건) 등 순이었다.

/최환준 기자

장성 토지(매매, 분양)	상무지구(상가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광주에서 20분 (6M도로인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1) 감평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용4억가) 2) 월수익 350만 (보4천) 3) 평수140평, (전용100평) 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시비없음,시설완비)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table><tr><td>광주</td><td>광산구 생암동(근린상가) ▶ 감평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산구(근린상가) ▶ 감평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 감평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평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처평동(근린상가)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14억5천 (5/26)</td></tr><tr><td>전남</td><td>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평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평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평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td></tr><tr><td>시외</td><td>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평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td></tr></table>	광주	광산구 생암동(근린상가) ▶ 감평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산구(근린상가) ▶ 감평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 감평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평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처평동(근린상가)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14억5천 (5/26)	전남	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평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평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평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시외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평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광주	광산구 생암동(근린상가) ▶ 감평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산구(근린상가) ▶ 감평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 감평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평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처평동(근린상가)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14억5천 (5/26)							
전남	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평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평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평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시외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평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010-6670-9800 (062-382-5500)								